

One pick

추천작



산꾼도시여자들

산에 오르는 ‘술꾼도시여자들’ 현실케미, 드라마보다 더 쏠쏠

tvN 예능 ‘산꾼도시여자들’ 첫 방송후 눈길

배우 이선빈, 한선화, 정은지가 드라마보다 더 쏠쏠한 ‘현실 케미’를 선보인다.

11일 첫 방송한 tvN 예능프로그램 ‘산꾼도시여자들’이 이들의 새 무대다. 지난해 10월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술꾼도시여자들’에서 각각 분위기 메이커인 예능 작가, 무뚝뚝하지만 정 많은 종이접기 유튜브, 발랄한 술꾼 요가 강사를 연기했다. 현실에서도 이선빈과 정은지는 각각 오락부장과 총무 역을 맡고, 한선화는 “막걸리 안 마실 거면 산을 왜 타”라며 ‘막걸리 맥방’을 선보여 웃음을 자아낸다.

프로그램은 세 사람이 다양한 산에 오르는 과정을 담는다. 등산 베테랑인 한선화가 대장으로, 등산 초보인 이선빈과 정은지를 이끈다.

무엇보다 드라마에서 갓 튀어나온 것 같은 이들의 성격이 시청 포인트다. 이선빈과 한선화, 정은지는 ‘술꾼도시여자들’에서 각각 분위기 메이커인 예능 작가, 무뚝뚝하지만 정 많은 종이접기 유튜브, 발랄한 술꾼 요가 강사를 연기했다. 현실에서도 이선빈과 정은지는 각각 오락부장과 총무 역을 맡고, 한선화는 “막걸리 안 마실 거면 산을 왜 타”라며 ‘막걸리 맥방’을 선보여 웃음을 자아낸다.

눈이 하얗게 내린 설산의 시원한 풍경은 시청자들에게 대리만족을 선사한다. 첫 방송에서는 강원 태백산 정상 모습에 담겼다. 세 시간여 만에 정상에 오른 이들이 점차 등산에 빠져가는 모습도 흥미롭게 펼쳐진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편집 | 최해경 기자 hk7048@donga.com

영화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지안

“파격 노출 위해 극한 다이어트…힘들었죠”

금서로 지정된 중국현대문학 원작 9년만에 신작 내놓은 장철수 감독 “지안 캐릭터의 당당하고 우아함 삼성가 이부진·서현 자매서 따왔다”

‘중고 신인’ 지안(임유진·38)이 파격적인 도전을 시작한다.

23일 개봉하는 영화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를 통해 수위 높은 노출 및 베드신을 소화하며 관객의 평가를 받는다. 2015년 마동석 주연 스타일 영화 ‘함정’과 2017년 ‘길’ 등에 출연했지만 이렇다 할 시선을 얻지 못한 뒤 쏠쏠한 휴지기 거친 그가 총무로의 신데렐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지안은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에서 북한군 사단장인 남평(조성하)의 부인인 그는 사병(연우진)과 위험한 사랑에 빠진다. 권력과 명예 등 모든 것을 가졌지만 사랑에 깊은 갈증을 느끼는 인물로, 우연히 만나게 된 사병을 통해 강렬한 감정을 일깨우며 그를 유혹하는 팍파탈이다.

14일 오후 서울 광진구 롯데시네마 네마건대입구에서 열린 시사회를 통해 지안은 온몸을 내던지는 연기를 펼치며 파격적인 노출신에도 과감히 나서 시선을 끌었다.

지안은 이날 “힘든 장면들이 후반부에 몰려 있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정말 힘들었다. (노출신으로 인해)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느라 많이 지쳐있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독님의 ‘컷’ 소리조차 잘 듣지 못할 정도였다. 연우진 선배님과 감



배우 지안이 14일 오후 서울 광진구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열린 영화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언론배급시사회 무대에 올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 | (주)제이앤씨미디어그룹

독임 덕분에 촬영을 마칠 수 있었다”고 쉽지 않았던 과정을 돌아봤다.

이에 지안과 파격적인 멜로연기를 펼

친 연우진은 “정말 최선을 다해주신 지안에게 고맙다. 이 영화의 많은 아이디어는 지안 덕분에 가능했다”면서 “동료

애를 넘어서 전우애와 군인 정신마저 느껴졌다”고 화답했다.

영화는 2005년 발표되자마자 금서로 지정되며 중국 현대문학사의 문제작으로 꼽히는 연재 작가의 동명 소설을 원작 삼았다. 원작 소설에서 주인공은 마오쩌둥의 열렬한 지지자로 설정됐지만, 영화에서는 배경을 북한으로 바꿨다.

2010년 ‘김복남 살인사건의 전말’로 디렉터스 컷과 대한민국 영화대상에서 신인감독상 등을 수상하고, 2013년 695만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한 ‘은밀하게 위대하게’의 연출자 장철수 감독이 9년 만에 내놓는 신작이기도 하다. 장 감독은 이날 극중 지안 캐릭터의 우아하면서도 당당한 매력을 “삼성가의 이부진·서현 자매에게서 따왔다”고 밝혔다.

장 감독의 지휘 아래 치명적인 팍파탈 캐릭터를 펼쳐낸 지안은 2003년 제73회 전국춘향선발대회에서 진에 당선됐다. 이후 연예계에 데뷔한 지안은 그동안 ‘길’, ‘커피메이트’, ‘무서운 이야기3:화성에서 온 소녀’, ‘함정’ 등 영화에 출연했다. 하지만 관객에게 강렬한 인상은 남기지 못했다.

그런 그가 휴식을 끝내고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를 통해 파격적인 노출 연기를 감행한 만큼 더욱 시선이 쏠린다. 영화 ‘아가씨’의 김태리, ‘인간중독’의 임지연, ‘은교’의 김고은 등이 신인임에도 과감한 연기에 도전해 총무로의 블루칩으로 떠오른 것에 비견하는 관심까지 일찌감치 이끌어내고 있다.

이승미 기자 smlee@danga.com

예능 주인공으로 우뚝 서는 황혼 스타들

‘진격의 할매’로 인기 김영옥·나문희 시니어 합창단 ‘뜨거운 썬어즈’ 합류 김갑수 ‘갯파터’서 색다른 매력 과시

김영옥, 나문희, 김갑수 등 황혼의 스타들이 예능 세계의 주인공으로 우뚝 섰다. 이들은 채널S ‘진격의 할매’, KBS 2TV ‘갯파터’ 등 예능프로그램을 이끌면서 색다른 매력을 드러내고 있다. 또 젊은 세대의 후배들과 교류하는 과정을 통해 폭넓은 시청자의 공감을 사고 있다.



김영옥



김갑수

다양한 예능 제작진은 장·노년층 시청자들이 TV프로그램뿐 아니라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변화에 주목해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

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2021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60대와 70대의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용률은 2021년 기준 각각 44.4%, 13.8%로 집계돼 2019년 대비 2배 이상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런 변화 속에서 김영옥과 나문희는 후배 박정수와 함께 ‘진격의 할매’에서 시청자의 각종 고민을 풀어주는 상담자 역할로 나서고 있다. 각종 드라마와 영화에서 주로 푸근한 어머니 역할을 맡아왔던 두 사람은 거침없는 입담으로 시청자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특히 “시대가 변했다”면서 요즘 젊은 세대의 관심사나 소신에 공감하려는 노력이 담긴 장면들은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들은 다음 달 14일 첫 방송하는 JTBC 예능프로그램 ‘뜨거운 썬어즈’에도 합류한다. 시니어 합창단을 소재로 하는 프로그램의 취지에 공감한 김영옥이 나문희에 직접 출연을 제안해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갑수는 ‘갯파터’에 출연 중이다. 트로트 가수 장민호와 가상 부자가 돼 여행을 가거나 새로운 취미에 도전하면서 추억을 쌓고 있다. 드라마에서 주로 드러내 온 카리스마를 잠시 접고 순박한 매력을 드러내 새롭다는 반응이 많다. 그에 앞서 이순재·주원 등도 후배 스타들과 짝지어 ‘갯파터’에 고정 출연해 신선한 재미를 안겼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Century

전기세가
확실하게 절감되는

센추리 초강력 인버터 냉·난방기



사업자등록증 OK
36개월 분납가능

45년 전통의 업소용 전문업체

(상가, 사무실, 공장, 식당, 교회 등)



냉난방기 구입시 꼭 확인하세요!! 전기세가 얼마나 절약되는지? / 냉방·난방 평수가 똑같은지? / 45년동안 고집스럽게 냉난방기를 만든회사인지?? 초기비용없이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36개월 분할납부가 되는지? / 빠른 설치와 A/S가 되는지??

센추리 공식 판매처 (주) 센추리에어컨

제품구입 무료전화

080-965-7777